

Session 5- No. 17

급성 단독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보존적 치료
Acute and Isolated Posterior Cruciate Ligament
Injury Treated Conservatively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안진환 · 서희수

서 론

동반 손상이 없는 급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후 그 결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1999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본원에서 급성 단독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21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. 초기 진찰과 추시 관찰시 이학적 검사, KT-2000TM 관절검사(arthrometer) 및 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정도(두께)를 관찰하기 위한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, 모든 환자에서 IKDC (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) knee score와 대퇴 사두근 근력 정도, 수상 전 운동 능력으로의 복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. 이후 초기 진찰시와 추시 관찰시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급성 단독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 본 연구의 평균 추시 기간은 22.7개월이었다.

결 과

초기 진찰시 이학적 검사에서 관찰된 후방 불안정성은 Grade I이 14례, Grade II가 6례, Grade III가 1례였으며, 추시는 Grade I이 18례, Grade II가 3예였다. KT-2000TM 관절검사는 초기 진찰시 건축과 평균 5.7 mm(3~12 mm)의 차이에서 추시에서는 평균 2.7 mm(0~7 mm)의 차이를 보였고, MRI 촬영을 통한 인대의 연속성 정도(두께)는 48.1%에서 69.7%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. 대퇴 사두근 근력은 평균Good등급이었고, 평균 IKDC knee score는 A등급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.

결 론

급성 단독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 급성기 초기에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임상적 및 영상의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